‘80년 5월’ 탄흔 위에 멈춘 시간…옛 도청이 다시 열렸다

복원 공사 마치고 시범공개된 ‘옛 전남도청’ 가보니

총탄·탄흔 그대로 남은 도청, 시민군 발자취 생생히 전시돼
홀로그램과 체험형 콘텐츠…최후 항전·시민 저항 순간 재현
보도검열관실 복원 제외…5월 정식 개관 앞두고 보강 필요

24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오는 5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복원 공사를 마친 옛 전남도청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복원 공사를 마친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당시 모습이 그대로 되살아난 듯한 모습이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시범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청 별관, 도청 본관, 도경찰국, 상무관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현장을 살펴보니, 5·18 당시로 돌아간 듯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졌다.

도청 본관 1층 입구로 들어서자 서무과 외벽 곳곳에 오목하게 파인 계엄군의 ‘탄흔’(총탄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전남도청 서무과에 있던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던 흔적이었다. 탄흔은 도청 본관 외벽부터 도경찰국 본관·2층, 상무관, 은행나무 등지에서 발견돼 아크릴 케이스로 보호되고 있었다. 도청 본관에서만 탄흔 의심 흔적 20개, 회의실에서 1개 등 총 21개가 식별됐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옛 전남도청에는 5·18 당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전시도 있었다.

도청 본관 2층 기획관리실장실에서는 기동타격대가 착용하던 방석모를 직접 쓰고 선서문을 읽으며 기동타격대원이 돼 보는 체험 코너가 마련됐다. 방석모 앞 달린 비표에는 검정색 펜으로 눌러 쓴 ’기동타격대’ 라는 글자 아래 ‘범’, ‘시계’ 등 자신만의 표식도 적혔는데, 서로의 이름도 모른채 각자의 별명을 붙여 부르며 함께 뭉쳐 싸웠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전시장 곳곳의 바닥에 설치된 ‘동판’도 중요한 전시물이었다.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재진입작전으로 사망한 열사들의 이름과 행적을 동판에 새기고, 열사들이 사망했던 자리에 설치해 둔 것이었다. 도청 회의실 2층에 있는 강당 바닥에는 윤상원 열사와 김동수 열사가 쓰러진 자리에 동판이 설치돼 있었으며, 도경찰국 본관 3층 복도에는 문재학 열사와 안종필 열사의 동판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옛 전남도청 전시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된 대규모 전시 공간으로서, 최근 정립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도지사 비서실에 전시된 5·18 당시 민간인 피해 규모와 계엄군 병력 등에 대한 공식 집계가 대표적이다. 5·18 진상조사위가 국가 차원의 조사를 거쳐 확정한 피해자 수를 전시한 것이다.

민간인 피해 최소 5846명, 계엄군 병력 2만315명이라는 숫자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고, 아래 전시된 전남도청 앞 헬기 사진과 시계탑 속 시간이 찍힌 사진도 계엄군의 집단발포 순간인 5월 21일 오후 1시 이후의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언론인 등이 설치를 요구했던 옛 전남도청 내 ‘보도검열관실’은 끝내 복원되지 않았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부족한 데다, 관련 공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립 과정에서 이미 소실돼 원형 복원이 어렵다는 것이 추진단 측 설명이다.

대신 추진단은 본관 2층 내무국장·새마을상황실에 보도 검열 관련 내용을 전시했으며, 올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도검열관실 관련자 구술영상을 제작하고, 자료수집 및 학술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6개 전시관과 야외 전시를 시민에게 시범 개방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시범운영 중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전시와 운영 전반을 보완한 뒤 5월 중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해설 관람은 오전 2회, 오후 8회 등 하루 10회 운영하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한다.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시범운영 기간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도 봄꽃 빨리 찾아온다

해남·완도 진달래 3월 24일…벚꽃은 4월 3~4일로 늦춰져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봄꽃이 전년보다 소폭 이른 시기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다음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봄꽃 만개시기(개화 50% 기준)는 진달래 기준 해남 두륜산 3월 24일(전년 대비 -5일), 완도수목원 3월 24일(-3일)로 예상된다. 영암 월출산은 3월 23일로 전년대비 2일 늦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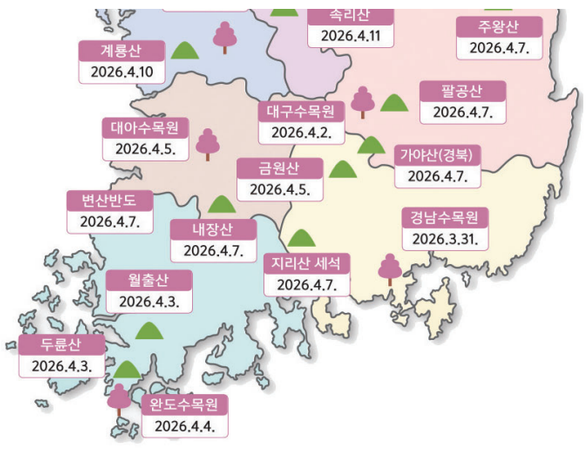
생강나무의 경우 완도수목원에서 전년보다 2일 빠른 3월 17일 만개하겠다. 월출산은 3월 25일(전년 동일), 두륜산은 3월 20일(전년 동일)이다.

벚꽃은 두륜산에서 전년 대비 1일 앞당겨진 4월 3일 만개하겠다. 월출산은 4월 3일(전년 대비 +4일), 완도수목원은 4월 4일(+8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는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졌다는 것이 산림청의 분석이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2026 벚나무류 만개 예측지도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며 “봄철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전남도, 3월 말까지 연 25만원

전남 청년들에게 1년에 25만원의 문화 활동비가 지원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19~28세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연간 2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을 받는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대상자 1인당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 문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돕고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전남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19~28세(1998년~2007년 출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월부터 반려동물과 식당 간다…조리장 분리 의무

전남, 동반음식점 제도 시행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음식점 이용이 가능해진 데 따라 식품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특히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경우 영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음식점에서는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음식점 내 반려동물 이동을 통제하는 등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식탁 간 충분한 간격 유지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등을 비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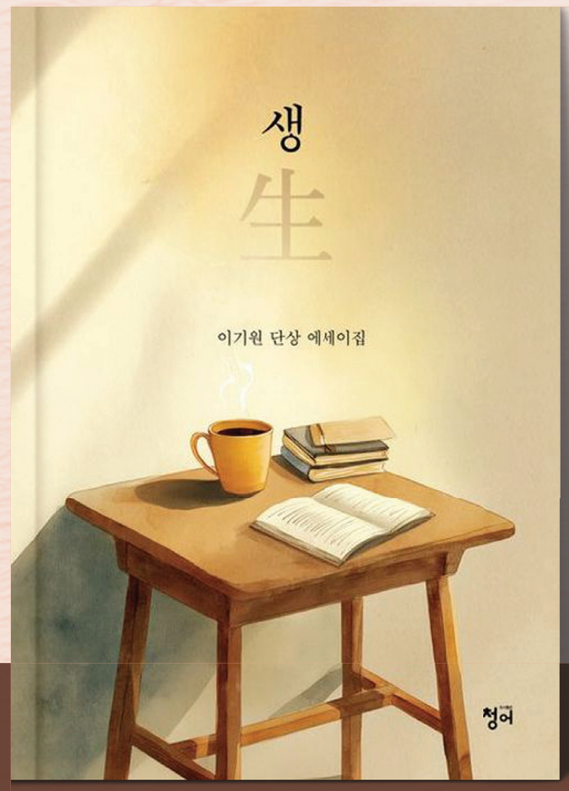
영업자가 사전검토를 원하는 경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신고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기준을 충족한 영업장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출입은 제한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없어도 음식점 출입이 불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312쪽 | 값 16,000원

生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톳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뭇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